권은희 전국회의원

뿌린대로 거두고, 아는만큼 보인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자

인터뷰

권은희 바른미래당 분당(을) 지역위원장(19대 국회의원)

대담자 : 사무총장 권오운

1. 6.13전국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제가 대구 북구갑 19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지역구를 분당으로 옮기다보니 아직 미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 마음은 더 급하고 현실은 안 따라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거일까지는 제 홍보는 지양하려고 하고, 정당 활동과 후보들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IT관련 대외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구북구(갑)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 대변인도 하시고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 지역구를 분당(을)로 바꾸셨더라구요. 갑자기 분당(을)로 옮기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대구 북구갑 의원을 하면서 꿈이 컸습니다. 17년간 비워져 있었던 제일모직부지를 삼성 창조캠퍼스로 개발하였고, 경북도청 후보지에도 3D프린팅센터 드론센터 등 유치하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들을 대구에 집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을 못 받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 대구 여성정치 아카데미 원장 등 대구의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결심을 하고 제가 20년 이상 살았던 분당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분당은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사와서 대학졸업 때 까지 살은 곳이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천당 밑의 분당이라고 했었는데 이전보다 삶의 질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3.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 집으로 출가하여 평생을 살아가는데 의원님에게 있어서 안동권씨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동 권씨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초등,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양반집 후손이라서 공부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남편과 핏줄이 섞이는 건 아니니 안동 권씨의 핏줄은 그대로 살아 있는거죠.

TV나 뉴스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큰일을 하신분이 권가이면 기분이 좋고, 나쁜 일에 거론되면 웬지 제가 창피한 기분이 듭니다. 명함을 교환할 때 권가이면 한 번 더 보게 되고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4.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13년과 2014년 두 번이나 수상하셨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희소성의 가치가 무척 높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국회는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 또는 보좌관, 시의원 등 정치인 출신의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다루는 법안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으로 의학, 공학, 약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IT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로 IT 관련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의 제,개정 활동 여론 확산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부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제언 등 이었구요. 제가 꼭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지방 거점 대학의 특성화였습니다. 매년 대정부질문을 통해 논리를 폈으나 일부만 반영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5. 의원님께서 그 간 수상한 수상내역을 보니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의류산업협회, 대구시 교육감, 국제품질테스팅컨퍼런스 SW발전대상,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제60회 정보통신의 날 정보통신대상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정활동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제가 주로 IT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옮겨가면서 개인정보보호나 정보보안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는 국력이고 사이버 보안은 국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보안산업의 기반이 허약하여 외산에 의존해야한다면 이는 정보주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많지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정보보안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산,학,연이 힘을 합쳐 정보보안산업 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6.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KT상무, KT네트웍스 전무이사, KT하이텔 상무이사 등 IT전문기업의 임원도 역임하시면서 기업경영도 하시는 등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는데 앞으로 분당(을)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음 의정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지금은 저를 위한 활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후보들을 도울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나 열심히 하였으나 아쉽게 낙선한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지요, 아쉽지만 원외위원장은 자기 이름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가 없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동권씨종친회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당에도 종친회가 형성되어

있고 타 지역이라도 분당에 지인들은 있으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경력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7. IT분야 전문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은 박사학위와 거의 동일한데 그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셨던데요. 인터넷 상에서 댓글 등으로 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석사학위를 받고 취직을 한 후 3년만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박사학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출산 등으로 여의치가 않아 대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댓글 행태가 이상해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각자가 의견을 올리는 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집단으로 올리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정 기사에 대해 댓글을 보면 부정적인 글들이 반복되어 나오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글들이 주루죽 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누군가가 집단 요청에 따른 댓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구요.

이제 인터넷 댓글은 건전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겁니다. 원래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려면 게시판의 질서와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할 책임, 이를 제대로 지켜야할 책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적인 여론몰이를 하려는 고의성을 갖는 댓글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들도 규칙을 잘 지키며 자유롭게 온라인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8.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비스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보안성의 측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대형사고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데이터(정보)가 국력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보가 많이 쌓일 때 유용합니다. 우수한 AI시스템을 만들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나 개인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중국기업이 인수한 센스타임은 얼굴인식서비스인데 정확도가 99%.세계 1위입니다. 당연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투명한 사회 기반 하에서 시민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대로의 사회 문화가 있으므로 이들이 같을 순 없습니다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가 된 데이터들은 활용할 수 있어야 AI 등 관련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홍보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간 균형을 위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각 산업에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고 융합되는 시대라서 AI가 사람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기계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자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이 러다이트운동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도입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부와 말똥치우는 사람이 없어지지만, 도로를 건설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수리하고 가로등을 만드는 등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4차산업혁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로봇이나 자동화시스템이 처리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야겠지요. 일자리의 행태와 일자리의 성격 등이 변화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대기업 정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분야를 활용한 프리랜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요리사라는 직업만 있었지만 요즈음은 요리사 영양사 쉐프 조리기계제조 패스트푸드 요리방송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업이 나오듯이 단순한 작업을 기계가 차지하면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시니어들의 다양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제도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의원님은 세월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와 좌우명을 소개해 주시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 집에는 남자만 셋 있습니다(남편, 아들 둘) 아이들은 모두 대학, 군대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동안이라 세월이 멈춰진 듯 보이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 건강검진 시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변에 탄천이 있어 자전거를 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손목 수술을 하게 되었구요, 계획을 바꿔 매일 탄천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늦은 밤이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것은 잘 하는 편이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좌우명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인데 내가 뿌린 만큼 내게 되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닌지 자주 반성하는 편입니다.

11. 마지막으로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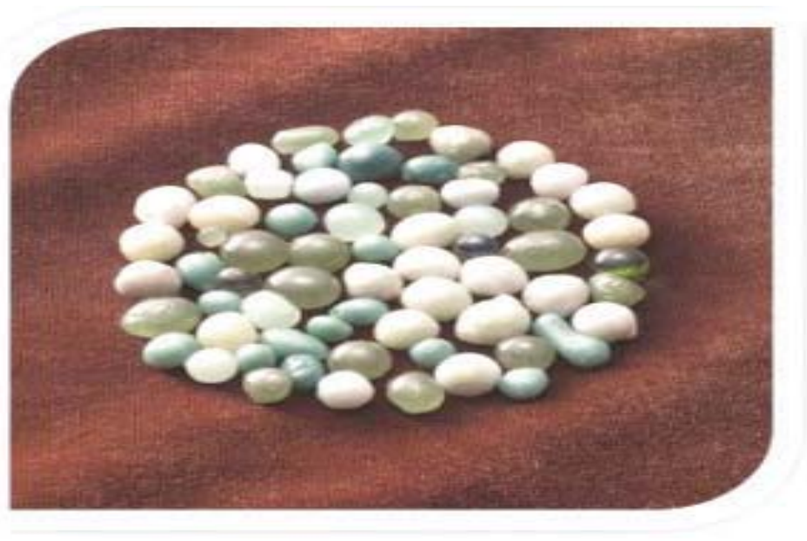
오늘 지면을 통해 족친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안동권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연히 족친들을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뜻을 품은 많은 족친들이 당선되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도록 족친들이 주변에서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공대를 나왔고, 전자통신신연구소의 연구원, 1588개발자, KT 임원, 중소기업 대표, 국회의원 등 조금은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국가와 지역에 봉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분당에 사는 지인들이 있으면 제 자랑도 좀 해 주셔서 제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겐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주식회사 본 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345번지 165, 홈페이지 : www.holytec.com / 상담문의 : 010-5224-0079 고문 권영순